

공교육과 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에듀테크' 시대를 열어갑니다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공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 육성



K-에듀테크
수출 활성화



국가 차원의
에듀테크 지원 체계 구축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www.moe.go.kr



행복한교육

11

vol.496 2023 NOVEMBER



02 네 꿈을 펼쳐라

곡성 전남조리과학고 창업동아리 '새미'
"우리 쌀 타르트 드시러 곡성에 오세요~"

28 교육웹툰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 진로직업인

애니메이션 프로듀서_박은애 교수
"성실과 끈기가 가장 빛나는 재능이죠"

COVER STORY

교육부는 지난 10월 5일 '함께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교육계 인사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가 '내가 생각하는 함께학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교육 3주체는 '함께학교'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였다. "함께학교 파이팅!"

발행일 2023년 11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편집인 대변인 박성민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김홍순
 사무관 배선연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서지영, 이경화
사 진 김경수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08 조양빌딩 본관 5층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6

특집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행복한 교육의 시작!

- 08 학생·교원·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 12 '함께학교' 위한 밑거름은 '소통'
- 16 교육청·학교 민원대응 시스템 가동하다
- 20 '교권 보호 4법'의 의미와 외국의 관련 사례
- 24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시작은, 교실에서



12

- 02 네 꿈을 펼쳐라
전남 곡성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창업동아리 '새미'
“우리 쌀 타르트 드시러 곡성에 오세요~”
- 28 교육웹툰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 교육자치시대
경상남도교육청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원에 전폭 지원
- 34 교육포커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 혁신 생태계 조성
: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 38 특별기고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 42 진로직업인
애니메이션 프로듀서
백석예술대학교 영상학부 박은애 교수
“성실과 끈기가 가장 빛나는 재능이죠”



02



34



42

- 46 일상의 심포
600년 전 지상에 세운 달나라 궁전 광한루원
- 50 이야기 인문학
제대로 읽는 동양고전, 주역
- 52 교실혁명
수학의 매력에 빠지는 시간
- 56 명예기자 리포트
경기도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꿈꾸다 外
- 61 이달의 교육뉴스
2028 수능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내신 9등급제, 2025년부터 5등급 체제로 外
- 64 예쁜 우리말
과부는 과거 부자?



46

전남 곡성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창업동아리 ‘새미’

“우리 쌀 타르트 드시러 곡성에 오세요~”



디저트 세상에 구수한 우리 쌀로 도전장을 던진 학생들이 있다. 전라남도 곡성에 자리한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교장 최혜진) 창업동아리 ‘새미’ 학생들이 바로 그 주인공. 이미 지난 9월 개최한 ‘2023 고졸 취업창업 페스타’ 직업계고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6명의 학생과 김성호 교사는 그 기세를 몰아 2023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 출전해 시와 스마트 기술을 키워드로 무장한 팀들을 꺾고 우수상을 받아 들었다.



1



2



3

쌀밥 넣은 가나슈·누룽지로 만든 크림 개발

전남조리과학고 기술형 창업동아리 ‘새미’의 이름은 곡성군 석고면의 특산물인 ‘백세미’를 상징하는 ‘세’의 발음과 ‘새로운 쌀의 맛’이라는 뜻을 함께 담아 만들었다. 요즘은 쌀로 만든 베이킹을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새미의 쌀타르트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들어보았다.

심다원(3학년) 학생은 “새미타르트는 쌀가루로 만든 파르타브레(타르트 반죽) 시트 위에 프랑지판(아몬드로 만든 크림)을 채우고 리조가나슈(화이트초콜릿 크림)와 레몬커드(레몬잼)를 섞어서 얹은 다음 누룽지 상티크림을 올려서 누룽지 분말을 토핑으로 뿌려서 만든다.”라고 소개했다.

제빵 전문용어들이 조리대 위에 떠다닐 때 윤채민(3학년) 학생은 “일단 맛있어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윤 학생은 이어서 백세미로 지은 밥과 우유, 생크림을 넣고 둥근하게 끓이고 화이트초콜릿과 섞은 가나슈 크림도 맛있고, 누룽지를 곱게 갈아 생크림, 쌀엿과 함께 섞어 만든 누룽지 상티크림도 맛있다고 덧붙였다.

팀장을 맡고 있는 오윤지(3학년) 학생은 “쌀가루 반죽으로 시트를 만든 타르트나 빵은 흔하지만, 우리 제품은 반죽부터 타르트를 채우는 크림과 토핑까지 모두 백세미를 활용한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효진(3학년) 학생은 레몬커드 때문에 상큼하고 버터, 아몬드 가루, 커스터드를 섞어서 만든 프랑지판 크림이 적당하게 달콤하고 고소한 맛으로 타르트의 전체적인 맛이 어우러지게 만든다며 레시피를 완성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성호 교사는 “특히 리조가나슈와 누룽지 상티크림, 레몬커드는 애플레어, 크림슈, 크림빵,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류에 접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라고

- 1 “우리 고장의 쌀로 만든 타르트 맛보세요~”
- 2 ‘새미’ 창업동아리는 지난 9월 ‘고졸 취업창업 페스타’ 직업계고 동아리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 3 2023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 참석해 부수를 운영하고 있는 ‘새미’ 동아리원들

강조했다. 또 김 교사는 “새미는 곡성군의 지역 특산물인 백세미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목표로 모인 청소년비즈쿨 운영 학교 기술형 창업동아리”라며 “올해 4월에 부원들을 모집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새미타르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석곡농협의 백세미 유통 관리 부서와 연계해 협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새미타르트 제품 패키지 구성부터 기와집 안에 벼 이삭이 자리하고 있는 새미타르트의 로고 디자인도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했다. 장서원(2학년) 학생은 “타르트 개발도 힘들었지만, 특히 로고 기획 회의 때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힘들었다.”라고 털어놓았다. 양주희(2학년) 학생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야 하고, 부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맛있는 타르트를 만들게 되어서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책임감 있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

새미는 매년 새로운 아이টে으로 도전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1팀 1기업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팀을 꾸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 왔다. 2021년부터 창업동아리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제4회 광주전남 청소년비즈쿨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왔다. 지난해에는 3D프린터로 제작한 실리콘 틀로 곡성의 특산물인 멜론 무스케이크를 개발해 교내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김 교사는 부원 모집 요건은 따로 없지만, 휴일도 없이 활동할 만큼 팀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의지가 강한 학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부원들은 서울 경진대회 출전을 위해 새벽 4시에 출발해 종일 부스를 운영하고 밤늦게 기숙사에 돌아오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선생님과도 전우애가 생겼다고 표현했다. 김 교사도 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모든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힘들 때, 기쁠 때 우리 새미 동아리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45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드디어 완성한 새미타르트 학생들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한다.

6 빵 만드는 일에 자부심이 넘치는 학생들



Mini Interview



오윤지(3학년) 학생

제품 개발만으로도 뿌듯했는데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2학년 때 교과 수업 외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했던 동아리 활동을 이어 온 보람이 있다. 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김성호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 창업이 목표였는데 제품 개발에 관심이 생겼다. 대학에 진학해 식품 개발 쪽으로 공부를 더 한 후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창업하고 싶다.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다.



심다원(3학년) 학생

초등학교 때부터 전남조리과학고에 진학하고 싶었다. 제빵에 관심이 많은데 ‘에콜 르노프르’나 ‘르 꼬르동 블루’ 등 글로벌 제과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싶다. 지금은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배움이 깊어진 다음에는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 건물에 나만의 패스트리 가게를 열고 싶다. 그동안 백세미를 이용한 디저트를 개발하는 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많아서 새미타르트를 만들던 모든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



장서원(2학년) 학생

후배들을 잘 이끌어서 대회에 출전해 준 선배들과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뿐이다. 내년에는 내가 선배로서 후배들을 멋지게 이끌고 싶다. 중학생 때 미리 한식조리자격증을 땀다. 조리특성화고 진학 전에 칼은 잡아봐야 하지 않나며 요리학원을 보내주신 부모님 덕분이다. 요즘은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떠나는 라오스 봉사활동에 기대가 크다. 교내 창업 요리경연대회 때문에 연기했는데 다시 라오스로 갈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졸업 후 식품가공학과에 진학해 연구 활동과 제품 개발 업무를 하고 싶은 바람이다.

윤채민(3학년) 학생

2학년 때 만든 멜론 무스케이크는 교내 팝업 행사만 진행해서 아쉬움이 컸다. 이번에는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좋다. 한번은 식혜 젤리를 얹어 보았는데 맛이 없어서 당혹스러웠던 적도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한 끝에 얻은 성과여서 더 뿌듯하다. 부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실수도 이해해주면서 잘 마무리해서 의미가 있다. 매운맛 라면 레시피를 개발하는 식품개발부서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효진(3학년) 학생

선배들의 제안을 받고 시작했던 동아리 활동을 올해는 후배들과 함께 했다. 당분간 제빵은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새미타르트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았다. 어릴 때부터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많이 지지해 주었다. 단체 기숙사 생활이 처음이라 낯설었던 적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점점 가족같은 사이가 되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요즘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베이킹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양주희(2학년) 학생

1학년 때부터 메뉴 개발에 관심이 많았고 레시피북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윤지 선배가 함께하자고 손 내밀어 줘서 참여하게 되었다. 타르트를 만들면서 여러 차례 실패하고 맛있는 조합을 찾기 위해 고민했던 그때를 잊을 수 없다. 사회에 나가면 새미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올해 서울에 가서 부스를 운영해 보지 못한 아쉬움은 내년에 해소해볼 계획이다. 그동안 대견하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행복한 교육의 시작!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지난 8월 23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 4법'을 9월 21일 제1호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등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의 자리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살펴본다. 그 밖에도 최근 달라진 교육청·학교 민원대응 시스템, 교권 보호 4법의 의미,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선생님의 교육이야기를 소개한다.

Special Theme

- 08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 12 '함께학교' 위한 밑거름은 '소통'
- 16 교육청·학교 민원대응 시스템 가동하다
- 20 '교권 보호 4법'의 의미와 외국의 관련 사례
- 24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시작은, 교실에서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올해는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도록 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해
나가겠다.

지난 7월, 한 초등학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촉발된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2023년 여름의 열기보다 뜨거웠다. 매주 수만 명의 선생님들이 광장에 모여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장을 외치는 목소리에 국민은 공감했고, 정부는 무너진 교권을 조속히 회복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교육부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 교육 현장 및 학부모,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과 집중적인 의견수렴을 하였다. 이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 4법’을 9월 21일 제1호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이 지면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현황과 원인,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현황과 원인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지속 증가하여 2022년에는 처음으로 3,000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그 유형도 다변화·복잡화·심각화하고 있다. 실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이르지 못한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

그림 1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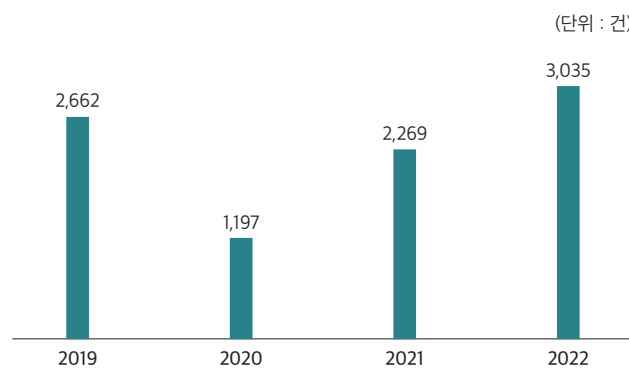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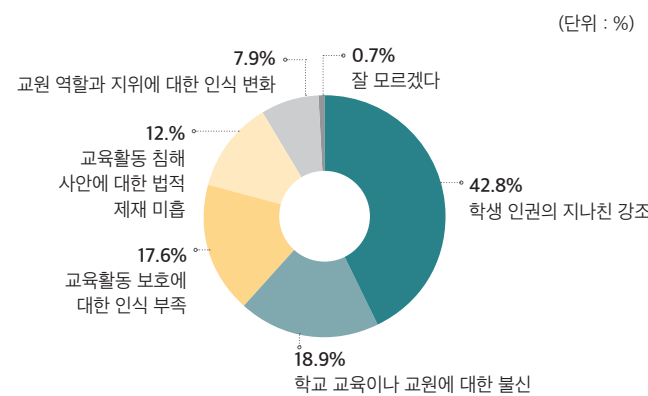


그림 2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유(한국교육개발원, '22)



하면 이미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 불응,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점을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이다. 특히 학생의 책무성을 수반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의 영향과 더불어 최근에는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문제점이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는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교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여 공교육 붕괴의 주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내용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

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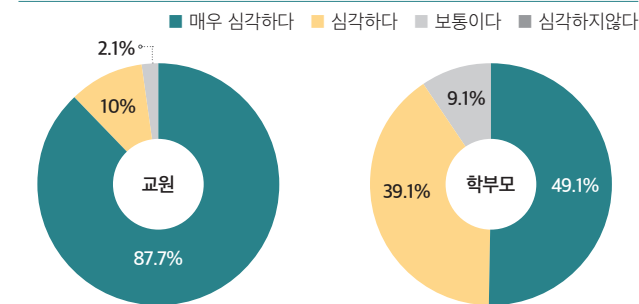
먼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으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조사·수사기관으로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한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시에는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 미이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교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를 부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하며,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지원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피해 교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하며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한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

그림 3 - (교원, 학부모)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은?(교육부, '23)



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등을 강화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며,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학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만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였으나 이를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으로 확대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에 전학을 선행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 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책무성과 행정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신뢰성을 높이고 단위학교의 업무경감 등을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의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원장·교원에게 유아 생활지도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였으며, 교원의 정당

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초·중등교육법」(2022.12.) 및 동법 시행령(2023.6.) 개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부여에 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를 제정하였다.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고시에서 학칙 등으로 위임한 사항(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운영 등), 학교 자율 결정 사항에 대한 운영 방향 등을 안내하는 고시 해설서(2023.9.27.)를 배포하였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관련 제도를 9월 25일부터 시행하였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전, 이미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운영을 통해 부처별로 필요한 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정하였다. 이제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지원청에 해당 사안을 공유하고 교육

교원 보호를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을 부여하였으며,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등)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청으로 제출한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수사기관으로 최초 사안접수 후 7일 이내 통보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한다.

민원 대응 체제 개선

그간 교원 개인이 부담하던 민원을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개선한다. 교원 보호를 위해 응대 거부권(학부모 등이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 제기 시,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 답변 거부권(학부모 등이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제기 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였으며,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교권 침해 통합민원용 특수번호(1395)는 2024년 초 개통한다. 또한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과 AI 챗봇을 개발할 예정이다.

교원 마음 건강 회복 지원

진정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권 확립의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지원도 시급하다. 지난 9월 15일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9월 25일부터 시행하였다. 전체 교원 중 희망자는 누구나 심리 진

단(검사)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상담과 전문적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심리 검사를 2년 단위로 정례화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유사 경험 교사 중 희망자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립감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주체 간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산 위해 노력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개선되었다. 그간 기울어졌던 교육공동체의 책임과 권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도 절실하다. 이에 교육부는 ‘함께 학교’를 운영하며 교육공동체와 단위학교,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등이 함께 추진하는 범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실 수 있도록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두 배 이상 인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학생, 교원, 학부모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 소통하고, 현장 교원 TF 운영을 통해 현장과 함께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 올해는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도록 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해 나갈 예정이다. ⑦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교육주체와 대화 자리 마련

‘함께학교’ 위한 밑거름은 ‘소통’



‘함께학교’는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학생이 꿈을 키우는 학교다.

교권 추락, 학교폭력 등 여러 문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화의 장이 펼쳐졌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한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도 개선 및 입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5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함께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더해 학생, 학부모, 현장 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함께 정책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다양한 교육계 인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온 100여 명의 학생대표, 학부모, 교사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함께학교’는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학생이 꿈을 키우는 학교”라며 “‘함께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수업을 바꾸어 나가는 교육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미래세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를 통한 수업 혁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교권침해, 사교육, 학교폭력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한 영상 발제를 통해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내가 생각하는 함께학교’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QR 설문을 통해 참석자 모두의 의견을 즉석에서 공유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다양한 답변 가운데 ‘믿음, 존중, 사랑’이라고 쓴 전주 동암고등학교 3학년 최현호 학생은 “그동안 학생 인권이 많이 강조되어 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인 분위기로 보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안타깝다. 내가 생각하는 학교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믿음, 사랑,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중학교 3학년 국이삭 학생은 “개개인 모두 가지각색의 역할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는 학교”라고 대답했다. 인천 경연중학교 안지영 학부모는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호 존중의 시선을 가지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은 친구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기 위해 어른에 대한 공경과 효도라는 가치를 복원한다.”라고 강조했다.

- 1 ‘함께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2 참석자들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3 이주호 부총리와 참석자들이 ‘내가 생각하는 함께학교’에 대한 교육 3주체의 생각을 함께 경청하고 있다.



교육 3주체, 공감·경청하는 대화 필요

학생, 학부모, 교사는 소통에 있어 경청, 공감하는 태도 등 대화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각자 사례를 공유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 갔다.

수원 조원고등학교 3학년 김승현 학생은 “e-스 포츠 동아리 개설을 두고 교내 갈등이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전인격적인 대화가 많이 이뤄지는 학교가 되어서 학생들이 공부만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의 방법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대전 동산고등학교 김종선 학부모는 “학생과 선생님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의 소통도 중요하다. 세심하고 애정이 느껴지는 선생님의 소통 방식 덕분에 아이를 지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세종 두루고등학교 서정은 교사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로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감정이 앞서는 말 대신 경청이 우선되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전주온빛초등학교 강현아 학부모도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뤄지는 초등학교 시기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다.”라며 “먼저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사가 학부모에게 좀 더 세심하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학부모에게는 교사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기를 부탁했다. 또 ‘함께학교’와 같은 소통의 플랫폼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했다.

디지털 플랫폼 구축해 소통의 장 마련

이날 참석자들은 부처 홈페이지 개편, 행정 업무 감축 및 장애학생을 고려한 플랫폼 구축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다방면의 질의를 아끼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직접 듣기 위해 매주 현장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부족함을 느낀다.”라며 “디지털 플랫폼 ‘함께학교’ 구축을 통해 교육 주체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고등 자녀를 두었다고 밝힌 춘천 강원중학교 이희정 학부모는 “학교 현장과 교육 부처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된 지역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학부모 관련 업무를 비롯해 교사들이 현장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를 바랐다.

학교에 실습을 나가고 있는 학부모라고 밝힌 대전 문정중학교 장미영 학부모는 “정부 부처에서는 업무 전산화가 필요하겠지만 현장에서 교사들이 주 업무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여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충남 설화고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 중인 장은미 교사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때 장애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장 교사는 “소통과 공감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이 바로 장애 학생들인데 정책안에서 장애학생들, 장애가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 접근하기 쉽도록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충남 합덕중학교 한동규 교사는 “새로운 플랫폼 구축도 좋지만, 이미 만들어진 K-에듀파인을 잘

활용해 교사들이 교육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또 행정 초등학교 최재영 교사는 “민원 처리를 위한 교육부 홈페이지 개편 및 ARS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는 검토 후 빠른 개선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대전 문정중학교 3학년 박준영 학생은 “교권 회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면 좋겠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시선에 아쉬움을 전했다.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김보민 학생은 취업성공기를 밝히며 “선생님들이 서류면접부터 필기 시험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손 편지로 감동을 주셔서 면접에서 긴장을 덜어낼 수 있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면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주온빛초등학교 3학년 최윤희 학생은 “말썰꾸러기 친구 때문에 재미있는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속상했는데 앞으로 친구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랐다.

‘교육 3주체와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이주호 부총리는 “앞으로 교권 회복이라는 단어를 함께학교라는 말로 대신하고 서로 존중하는 함께학교 캠페인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며 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는 ‘함께학교’ 누리집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제안하는 내용을 수시로 점검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4 전주에서 참석한 최윤희(초3) 학생과 강현아 학부모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초등 시기 경청하는 방법을 배워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5 합덕중학교 한동규 교사는 “선생님들과 교육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교육 3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다.

원하는 맞춤 교육 정보를 각각 제공할 계획이다.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구성할 방침이다. 먼저 10월 말까지 정책제안방을 개설하고 나머지 기능은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⑦

교육청·학교, 민원대응 시스템을 가동하다

각 교육청·학교가 올 2학기부터
민원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되는 교육청 단위의 민원대응
시스템과 기대효과를 소개한다.

12 충남교육청은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를 위촉하고, 교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변호사 동행 서비스’, 사안 초기 대응력 강화하고 소송비도 3천만 원까지 지원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에 대
한 후속 조치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발표했다. ‘변호사 동
행 서비스’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
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송비 지원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의견서 제출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교육청 중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하태민 장학사는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나 학생의
담임교사 폭행 등 교권 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충남교육청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보호장치 강화의 일환으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출범하게 됐다.”라며 사업추
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기존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20명 외에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10명을 추가로 선임하고 도교육청에서 10월 4일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
촉된 30명의 교육법률지원단은 지역별 담당 변호
사로 배치되어 법률상담, 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법률지원과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수사단
계에 동행하여 신속한 법률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위촉 변호사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소송비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는, 악성
민원이나 신고 등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교원이나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변호사
가 지정되면서 교원과 변호사 간 선임계약을 통해
법률지원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수임료는 교육청에
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최근 교권 4법이 통과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와 구분하는 법적 근거
가 생겼다.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기반으로 교육활
동 관련 법률분쟁 시 초기 대응력이 강화될 뿐 아니
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교
원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된 점에서 기대가 크다. 교육
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
표전화(1588-9331)를 개통하고 접수된 사안에 대

해 피해교원 요청 시 전담 변호사와 장학사로 구성
된 교권보호전담팀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법률자
문을 포함한 사안대응을 돕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민원대응 시스템을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
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무, 행정 분야를 포함한 민원대
응팀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도 통합민원팀을 설치,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사생활 보호하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개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를 개발, 관내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희망교원 및 돌봄전담인력 등에 제공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를 시작한 대구시교육청은 이후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하여 교내 유선전화를 휴대폰과 PC로 연동
해서 사용하는 안심번호 서비스와 교원이 사용 중
인 기존 휴대폰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는 투넘버
서비스 두 가지로 구분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의 경우, 학교 단위로 업체
를 선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안심번호를 이용해
학생·학부모와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은 물
론, 수업시간·하교시간·퇴근시간 등의 안내와 대화
녹음 등 다양한 소통 및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희망조사를

학교장 책임하에 교무, 행정 분야를 포함한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도 통합민원팀을 설치,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

실시한 뒤 안심번호 또는 투넘버 서비스를 선택하고, 학교교구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안심번호 또는 투넘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 단위로 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하면 이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제공한다. 투넘버 서비스는 교원이 직접 사용하는 통신사에 개별 신청하면 여기에 따른 추가비용 역시 지원한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를 거듭할수록 교권 관련 이슈가 증가하는 만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예산과 이용률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한다. 교육청에서 조사한 서비스 보급률을 보면 현재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관내 473교, 10,198명의 교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교권관련 사건·사고가 연일 보도된 2학기에는 신청학교와 교원이 더 늘어나 관내 초등학교 95%가 사용할 만큼 이용률이 올라갔다. 또 투넘버 서비스의 경우 관내 중학교 26교, 고등학교 28교 총 54교 176명의 교원이 사용 중이며, 안심번호 서비스 역시 다수의 교원이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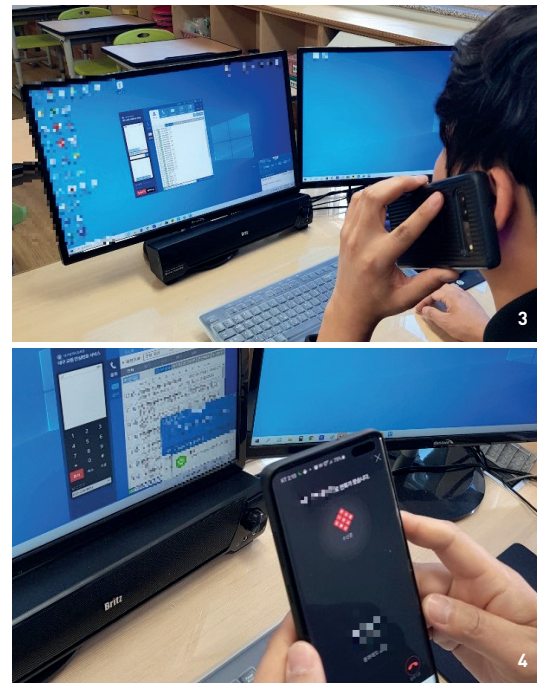
김동현 장학사는 “2019년 사업초기에는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이용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광고전화로 오인해서 교사의 전화를 받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2021년부터 업데이트된 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실이나 교사마다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면서 기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를 거부할 수 있어 현장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번호가 노출되지 않고 학부모와 연락할 수 있어서 좋다.”, “수업시간을 설정하면 ARS로 넘어가서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다.”, “학교 시간이나 퇴근시간 안내멘트를 설정할 수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된다.”, “문자와 전화통화 모두 사용이 가능해서 좋다.”, “휴대폰에 안심번호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교실의 안심번호로 누가 언제 전화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답변할 수 있는 점이 좋다.”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 교원들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황재연 장학관은 “교권보호뿐만 아니라 교원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34 대구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은 필수적이다. 9월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원을 포함하여 관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안심번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작으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회복 및 보호정책 등을 세심하게 실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핫라인 개통 및 특수교육 활동

보호 위한 ‘원스톱 긴급 현장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6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운영해오던 개별 전화번호를 통합해 ‘SOS!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빨리 출발, 빨리 처리)’을 개통하고 교권보호 또는 피해교원 관련 문의 민원창구를 단일화했다. 핫라인으로 전화하면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포함해 행정·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안발생 시 교육청에서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해 줌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핫라인은 개통 직후인 9월 한 달간 147건의 법률자문이 이뤄질 만큼 교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9월부터 ‘원스톱 긴급 현장 지원’ 시스템도 도입했다. 원스톱 긴급현장지원은 교육활동 중 특정 학생의 돌발·과잉·문제행동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과 특수교사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즉시 대응 시스템이다. 먼저 돌발·과잉·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선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긍정적 행동지원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긍정적 행동지원단’ 내의 ‘행동 중재 전문가 긴급 개입’

을 지원한다.

또 학생의 돌발·과잉·문제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여 치료비 지원과 대체인력 긴급 투입 등을 지원한다. 기존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인력풀인 순회교사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특수교육 활동 중 발생한 피해로 교원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교원은 일정기간동안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동시에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도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덧붙여 긴급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던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교육지원청에 지정된 긴급지원담당자에게 전화하면 1~2일 안에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수교육과 주재승 장학사는 “일반학교나 특수학교 가릴 것 없이 이전에 비해 아이들의 장애정도가 더 중증화되면서 학교현장에 계신 교원들이 교육활동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도 더 많아졌다. 수업 시 착석이 어렵다거나 교원·친구를 대상으로 한 돌발·문제행동을 저지하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많다. 경기도교육청은 행동 중재에 중점을 두고 특수교사와 학생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활동 보호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의 교원들이 자기보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교육구성원 모두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교권 보호 4법’의 의미와 외국의 관련 사례¹⁾

지난 9월 21일에 소위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9월 27일에 개정되었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등 4개 법률에 규정된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관련 조항을 의미한다.

이번에 개정된 교권 보호 4법은 개정 법률과 조항의 수가 많고, 개별 법률 조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당사자인 교원, 학부모, 학생과 교육청 관계자 등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입법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교원들의 경우에 교원대학교·사범대학 등 교원 양성과정에서 ‘교육법’이 교직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직 교원들에 대한 교육법 연수도 필수가 아니다. 이로 인해 평소 교원들의 교육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도 많은 교원들이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내용을 법률별로 설명하고, 이번 법률 개정이 갖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실 내 질서유지 관련 외국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글이 학교 현장의 교원과 학생, 학부모, 관련 연구자 등에게 이번 개정 법률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교육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내용

1) 부모 등 보호자의 교원과 학교의 교육·지도 존중 의무 명시

개정 「교육기본법」(2023.9.27. 시행)은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도록”(제13조 제3항 신설) 규정하였다. 선언적인 규정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교육기본법」은 모든 교육관계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도록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그 내용과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 부모 등 보호자의 교직원·학생 인권 침해 금지 및 교육활동 협력 의무 명시

개정 「초·중등교육법」(2023.9.27. 시행)은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지원하여야 하고,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하도록”(제18조의5) 규정하였다. 신설된 「유아교육법」 제21조의4도 내용상 동일하다. 「교육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3)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

개정 「초·중등교육법」(2023.9.27. 시행)은 “교장은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제20조 제1항 개정) 규정하였다. 개정 「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도 내용상 동일하다. 학부모 등이 제기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상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교(원)장의 임무에 민원처리를 추가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4) 학교와 학교장의 교원 개인정보 보호 책무 강화

개정 「초·중등교육법」(2023.9.27. 시행)은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제20조의3 신설) 규정하였다. 신설된 「유아교육법」 제21조의5도 내용상 동일하다. 학교(유치원)와 교(원)장의 교원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이다.

5)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 적용 제외

개정 「초·중등교육법」(2023.9.27. 시행)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도록”(제20조의2 제2항 신설) 규정하였다. 신설된 「유아교육법」 제21조의3도 내용상 동일하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6)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 방지

개정 「교원지위법」(2023.9.27. 시행)은 “교원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제6조 제3항 신설) 규정하였다.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향후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 아니 된다.

7)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개정 「교원지위법」(2024.3.28. 시행예정)은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시·도, 시·군·구(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17조 신설) 규정하였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조사나 수사를 시행하는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대해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조사나 수사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할 경우에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 처리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을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 개선에 합의하였으며,

1 이덕난,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내용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 최서지,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교권보호 제도 및 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중심으로」, 『2022년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 11월호』, 2022. 등을 종합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은 저자의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며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이를 토대로 법률 시행일 이전인 2023년 9월 25일부터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8)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공무 집행방해죄·무고죄 등 추가

개정 「교원지위법」(2024.3.28. 시행예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도록”(제19조 신설) 규정하였다. 종전의 규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고,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새로 추가된 유형은 학부모 등의 소위 '악성 민원'(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과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형법」이 정한 공무방해에 관한 죄, 무고의 죄, 업무방해,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최근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의 심각한 실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9) 학교장과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및 피해교원 보호·회복 지원 확대

개정 「교원지위법」(2024.3.28. 시행예정)은 학교장과 교육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교원의 보호·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조항을 개정하였다. 학교장 등의 축소·은폐 금지(제27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즉시 신고 의무화(제28조 신설), 피해교원으로부터 가해자 즉시 분리

(제20조),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제22조 신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제29조) 등이다.

그 외에도 개정 「교원지위법」(2024.3.28. 시행예정)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등의 수립 강화,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가해 학생 및 가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강화,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과 등 여러 개의 조항을 개정하였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의미

첫째, 교권 보호 4법은 학부모의 역할을 한 학생의 보호자에서 전체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재정립하도록 주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개정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반영되어 있다.

둘째,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3년 8월에 교육부는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민원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민원 대응'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민원은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에서 접수하고, 민원 유형 가운데 단순 요청은 민원대응팀이 처리한다. 그리고 협조 민원은 민원대응팀을 거쳐서 교직원인 처리하나, 대응이 필요한 민원은 학교장이 처리하거나 상급기관(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하여 처리한다.

셋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그 이후의 사안 처리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사안 처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교직사회가 안정을 찾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학부모 등의 신고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신고 자체를 막거나 교육청(또는 소속 기구)으로 신고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며, 제21대 국회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넷째,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보호·회복 및 방지 대책을 강화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특히, 지난 9월 1일에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의 시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향후 교권 보호 4법과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을 적절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다수 마련되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는 19개이며, 이는 공통 사항을 제외한 38개 조문의 50%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비)교원들이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과 리얼마인드(법적 사고체계)를 교육·연수받을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에 '교육법규'를 포함하고 현직 교원 연수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 교육법 교육을 강화하여 교원의 교육법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력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실 내의 질서유지 관련 외국 사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교사권리장전」을 마련하여 가르칠 권리, 학생을 훈육할 권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장시킬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영국**의 경우 교사에게 학습자를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학습자를 별도의 장소로 이동 조치, 부적절한 물품 압수, 제재를 위해 합당한 물리적 사용 등의 권한을 명시하였다.

 **독일**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주(州) 「학교법」에 따라 보장된다. 교사는 수업, 학생 훈육, 상담, 평가, 감독, 돌봄에 관한 자율권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교의 질서유지와 다른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출석정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품행불량으로 교육에 방해가 되면 학생의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기초교육법」은 “수업 방해, 학교 질서 침해 등을 행한 학생에게 2시간 이내에 방과 후에 남게 하거나 서면경고, 중대한 경우 최대 3개월의 기간 동안 정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교장 및 교사가 교실 등의 공간이나 학교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중대한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 대해 떠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핀란드는 국가별로 사회적·문화적·정치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교권 및 교권 침해의 의미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 교실 내의 질서유지에 관한 입법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2023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교원과 교원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와 이에 호응한 국민 여론, 국회와 교육부 등 여러 행정기관 등의 공동 노력을 통해 교권 보호 4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과 조항의 수가 많고, 그것이 갖는 의미도 크다. 추가적인 입법 요구도 있다. 개정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도 남아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 ⑫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시작은, 교실에서



123 학생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활동으로, 사진 위에서부터 생일이벤트, 스포츠활동, 선생님집 방문 모습

4 모두가 참여하는 '학급 설명회'

‘교육은 연애다’

학생들의 마음열기

교육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매슬로우의 자기 초월욕구를 접했을 때,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했다. 내가 어린 학생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 좋았다. 그리고 대학교 4년 내내 조별 수업 발표와 피드백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을 만날 준비를 했다. 어떤 이론을 공부해도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학생들’이었다. ‘이 세상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알까?’ 나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발령받고 현장에 오니, 다른 상황들이 펼쳐졌다. 대학에서 시연 수업을 준비할 때는 학생들이 당연히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확신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듣지 않고, 따라 주지 않는 학생들 앞에서 내 노력과 열정은 별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열정이 크면 클수록 반작용은 더 커졌다. ‘주려는 내 마음보다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것이 새내기 교사로 발령을 받은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느낀 첫 번째 한계였다.

그 후, 나는 내 기준이나 의지를 내려놓고 학생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했다. 제일 처음 시도한 것은 기념일 챙기기였다. 첫 만남, 어린이날, 생일 등의 기념 이벤트로 학생들 몰래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기념일에 맞는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학생들과 좀 더 편안하게 가까워지려면 형식 없이 교외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방과후 데이트’를 계획했다. 학급 생활 보상으로 월 1회 한 모듬씩 주말에 선생님집 방문하기, 놀이공원 가기, 볼링 등의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안 학생들과 격의 없이 친해질 수 있었다. 그런 시간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준비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후에 기뻐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학생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행복했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선생님의 배려에 감동한 학생들은 나의 지도에 잘 따라와 주었고, 가끔 엄한 훈육을 해도 반발하지 않고 내 의도를 이해해 주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와 함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는 것이구나.’ ‘아이들을 통제할 수(이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구나.’ 두 가지 깨달음으로 그 후 5~6년 동안 교직 생활이 행복했다. ‘교육은 연애다.’라는 명제를 생각하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우리 반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학급 설명회’

그렇게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교직 생활에 두 번째 한계가 찾아왔다. 시간이 가고 세대가 달라질수록 학생들은 부담스러운 일을 싫어하고 현저히 거부했다. 친구 관계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행동의 빈도도 높아졌다. 이것을 지도하려면 필연적으로 훈육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오는데, 이때는 학생과 나의 신뢰만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었다. 나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또 다른 존재, 학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학생을 위해서 훈육한다 해도, 학부모가 그 진심을 모르면 오해와 문제가 생



길 수밖에 없었다. 훈육의 신뢰도 부분은 놔두더라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앞에서만 규칙을 지키고 위선과 기회를 엿보는 교육의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 행복한 교직 생활을 위해서 나는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했다.

두 번째 한계를 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은 훈육에 대한 오해를 푸는 일이었다. 나의 진심을 학부모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진행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미 생긴 오해를 푸는 것보다, 처음부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실시되는 학부모 상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 특히 마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했다. 학생들의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훈육이 필요한 시점이 온다는 사실, 어렸을 때 키워주어야 하는 자제력의 필요성,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집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과의 관계,

학생, 학부모, 교사는 마치 세발자전거의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한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육가족’인 것이다.

- 5 학급 설명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급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고민하게 된다.
- 6 찾아가는 부모교육-하트톡 엄빠스쿨 모습



원주시민을 위한 가족일링콘서트
2023년 9월 2일(토) 오후 3시
장소 원주 치악예술관
주최 원주지역문화재단, (사)원주예술단
주관 원주교육지원청,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후원 원주교육지원청,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학생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만남이라는 사실 등이 전달되었을 때 학부모와 나의 마음이 연결되어 한 편이 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10년 전부터 개별적으로 꾸준히 배워 온 ‘교사 마인드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 학기 초에 상담하면서 교사의 진심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교사와 한마음이 되었고, 나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생각에 더 힘이 났다.

그런데 학부모 상담은 1:1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학급 설명회’였다. 학급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해서 부모교육을 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최대한 모든 학부모가 모일 수 있도록 개별로 연락하고, 직장을 가진 학부모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을 활용했다. 간단한 다과와 레크리에이션, 발표자료 등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지만, 성과는 아주 좋았다. 개별로 여러 번 해야 할 이야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모든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공감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더 좋았다. 사교육 중심으로 내 아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 설명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급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학기 초 학급 설명회 한 번으로 나머지 1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기에 나는 이 활동을 7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으로 줌(Zoom) 화면을 통해서 모였는데, 의외로 생각지 못한 효과가 있었다. 학부모들은 이동하지 않고 가정에서 줌 더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었고, 화면을 통해 가정에 있던 아이들도 함께 듣고 반응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장이 된 것이다.

‘아이를 길러내는 일’에 교사·학부모는 같은 편이어야...

이런 우리 학급의 사례를 옆 반, 옆 학교에서 접하게 되면서 3년 전부터는 다른 학교 부모교육 초청 강사로도 활동했다. 그런데 학급 설명회가 아닌 전체 학교 부모교육 자리에 오시는 부모님들은 한정적이다.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만 참가하실 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여전히 학교 방문을 어려워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찾아가는 부모교육-하트톡 엄빠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최도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교육지원 단체(하트톡)로 하고, 장소도 도서관, 문화원, 복지관 등에서 진행한다. 월 1회 토요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들만 참가할 때도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12회로 회차가 거듭될수록 많은 부모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표현되면서 지역사회 신문과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 시간의 교직 경험을 되돌아보았을 때,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의 도움이 절실한 관계이다. 교사는 학부모 도움 없이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거나 행복한 교직 생활을 할 수 없고, 학부모 또한 교사의 도움 없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는 같은 편일 수밖에 없는데, 둘 간의 신뢰가 깨져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하다.

가정에서 부모가 다투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자녀들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듯이,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제자, 나의 자녀에게 돌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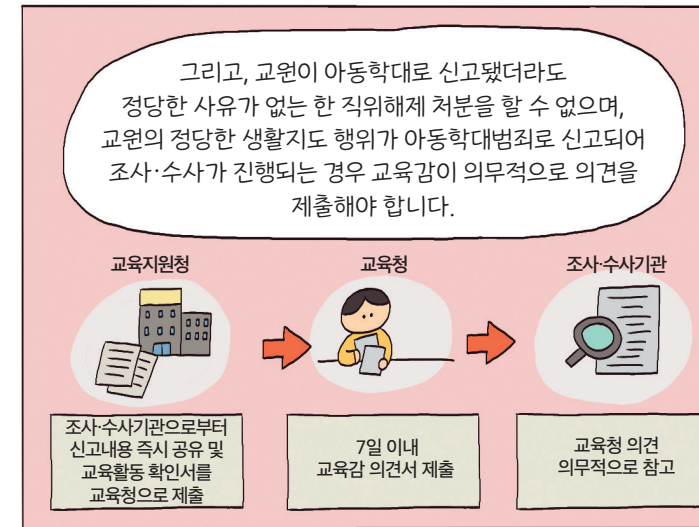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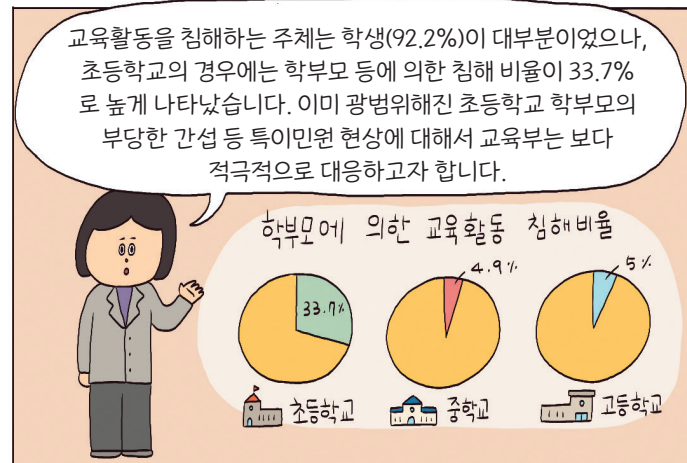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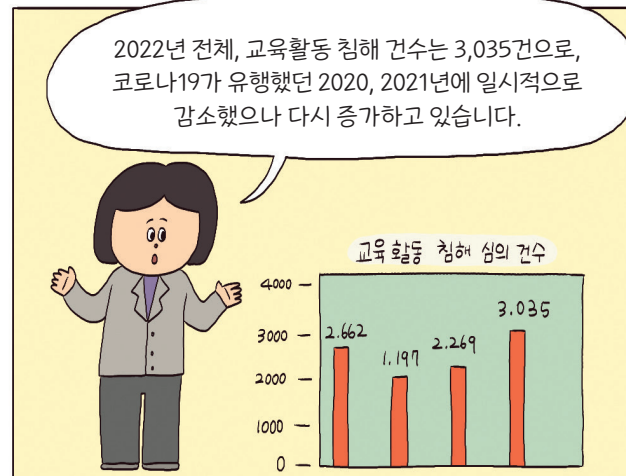
다.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제자를 위한다면, 각자의 옳은 생각도 잠깐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그 심리를 잘 이용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엄마 앞에서 아이를 갈라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주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는 금방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면서 내 아이가 아니니 저쪽 편에게 아이를 주라고 했다. 누구의 소유가 되든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학생·학부모·교사, 세발자전거의 바퀴처럼 함께 가다

최근 교육계에도 오래된 문제들이 드러났다. 많은 아픔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고치고, 상처받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제도와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유의해야 할 것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가 자주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홍수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물을 멀리할 수 없다. 우리 삶에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과정 또한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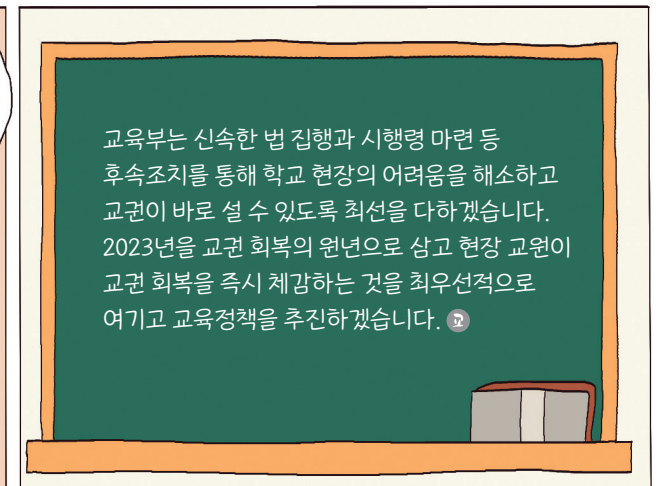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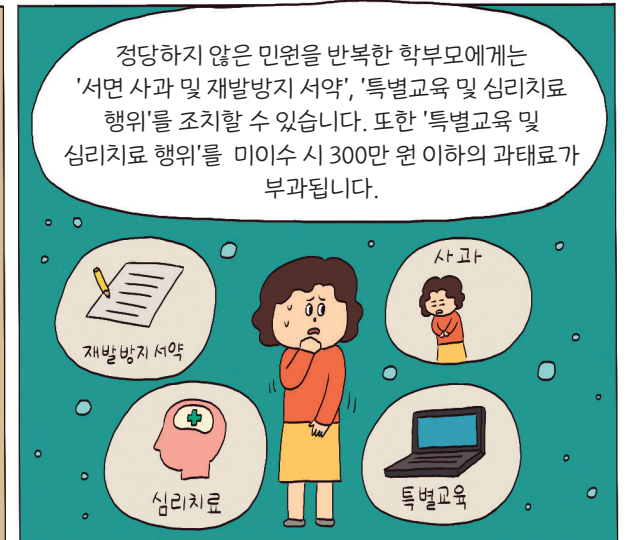
학생, 학부모, 교사는 마치 세발자전거의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한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육가족’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실에서는 행복한 ‘교육 세바퀴’가 움직이고 있다.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시작이 나의 교실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⑤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의 책임이 학교장(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제기 방식	민원창구	민원처리 방식			
온라인 유선	민원대응팀 (접수, 배분, 일부처리) 	민원 유형	민원대응팀	교직원 등	
		단순 요청	→ 처리		
		협조 민원	→	- 배분 - 협조 처리	교직원 직접 처리
		관리자 대응민원	→	배분	학교장 책임 처리
		상급기관 대응민원	→	상급기관 이관 및 교육 지원청 통합민원팀 처리	



경상남도교육청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원에 전폭 지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는 2019년 3월 개관 이후 전국 교원치유지원센터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모범 기관이다.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주무관 등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 중인 전국 최대 규모로 법률자문·심리상담·행정지원·치유연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상처받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또 접근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0년 5월 진주상담실을 개소하고 도내 전문상담센터, 심리치료병원 등 26개 외부기관을 지정해 촘촘한 외부 연계망을 구축했다.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의 전신인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교사를 외부 상담기관으로 연결해주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다. 경남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지난 2019년 3월 경남교육청 2청사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개관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상담·치료·법률지원 등 필수적인 지원을 공급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의 건립 취지다.

치유·회복·예방 중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에서는 법률상담, 행정상담, 심리상담, 전문적인 치유연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교육활동 침해, 직무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치유연수’,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조되는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예방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치유연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나 심층 심리상담이 필요한 위기 교원을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향상 및 치유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또 치유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문상담사가 직접 기획해 운영하는 ‘대상별 특화 교사 치유연수’는 소규모의 교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빠른 치유와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에는 센터장인 장학관을 중심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교사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교직원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연간 2천 회가 넘는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을 담당하는 장학사, 교원과 학생의 심리상담을 전담하는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자문을 맡은 교권전문 변호사,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관 등이 상주 근무하면서 조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사·교직원, 월평균 183건의 상담 진행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센터에서 진행된 상담은 총 2,198건으로 월평균 183건의 상담이 진행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심리상담 1,864회, 행정상담 188회, 법률상담 146회, 온라인 심리상담 역시 12회가 이뤄졌다. 교사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교직원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연간 2천 회가 넘는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막힘없는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남교육청은 연간 17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강혜린 장학사는 “학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해 다양한 교원치유지원사업, 교육활동 보호 및 예방 교육자료 개발, 그리고 사안발생 시 교권보호신속지원팀 투입 등 시의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회복과 빠른 복귀, 그리고 질 높은 학교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믿는다.”라고 설명했다.



1 선생님과 교육감의 대화(2019)



2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개관식(2019. 3, 경남교육청 2청사)

전문상담기관 26개→40개로 확대 추진

그동안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찾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면하는 주요 이슈는 학생지도 및 학부모와의 협력과정이었다. 센터에서는 상담을 신청한 동기가 된 특정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 특정 학부모와의 협력방법 모색, 해당 교사의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 및 회복탄력성 강화 등 체계적인 상담계획을 세워 상담을 진행하되 효과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상담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한다. 교사의 필요에 따라 협의하고 충분한 기간 상담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생지도와 업무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들은 “회를 거듭하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이 강화되는 경험을 했다.”, “치유연수 이후 동료교사와도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전문상담사와 상담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어 감사했다.” 등 대다수가 센터의 기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조사·반영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치유연수’와 전문강사가 교육 현장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권연수’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도내 2,9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해 평균 99점의 만족도 점수를 받을 만큼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초임교사, 저연차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사 등 대상을 특화하여 집단상담으로 진행하는 ‘대상별 특화 교사 치유연수’ 역시 ‘매우만족’에 표시한 교원이 99%로 연수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교원들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치유연수, 법률상담, 교권침해 예방교육 등이 치유와 회복, 교육환경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김진홍 센터장은 “도내 전문상담기관과 심리치료병원 등을 지정해 교사 1인당 100



3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입구



4 집단상담실

만 원 이내의 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교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향후에는 교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문상담기관을 26개에서 40개로 확대 지정하고, 교원의 거주지 내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경계를 낮출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은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는 전 지원과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협력을 강조한다. 교육공동체에 뿌리 내린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조성은 물론 학생들의 소중한 꿈도 활짝 피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Interview

류길용 교권담당 변호사

“7년간 교권관련 법률상담 750건 진행, 스쿨 가드제 도입 필요해”

Q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에서 교권담당 변호사로 일하게 된 계기는?

2017년에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인 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공고를 살피던 중 경남교육청에서 교권담당 변호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근무하게 됐다. 그동안 750건 정도의 교권침해 관련 법률상담과 그보다 많은 수의 일반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Q 기억에 남는 사건과 이유는?

2019년 3월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가 개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가 퇴근할 때 찾아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다. 장학관, 장학사, 전문상담사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활동침해 관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위한 행정절차, 심리상담, 그리고 법률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관할 경찰서에도 장학관님과 함께 방문해 교사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했다. 장학관님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던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경찰서에선 밀착경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호루라기를 불어 소리로 경고하여 주변에 알려거나, 시계에 비상버튼 장치를 설치해서 누르면 경찰서에 바로 신호가 가서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신변보호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려줬다.

Q 교권침해 관련사건을 해결할 때 중요한 점은?

교권담당 변호사로서 사안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바라보며 상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수업권, 생활지도 등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사안 당사자는 서로 역지사지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만 사안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내용에 불복이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더 큰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Q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 현장에 도입이 필요한 법안은?

교육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에 훈육의 방법으로 학생을 분리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분리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분리를 누가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쿨 가드제(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경우에 스쿨 가드를 불러 학생을 분리한다.)가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에서 스쿨 가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 혁신 생태계 조성 :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1 안드레아스 슬라이허 OECD 교육기술국장의 기조연설



2 각국에서 참석한 석학, 장관, 교육 분야 정책가 및 전문가 등이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교육은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구성원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고, 그들이 다시 미래를 만들어가는 순환의 연속이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 본성에 관한 근원적 고찰과 함께, 사회 발전, 기술의 진보,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교육계는 그 구성원과 혁신의 주체가 다양하다. 최근 미래교육을 향한 변화의 과정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둘러싼 '교육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system for Education)'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수직적 정책 수립과 집행의 체계(피라미드 방식)가 아니라, 교육 관련 모든 행위자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와 자원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 또는 건전한 경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체계를 발전시키는 유기적인 플랫폼 구조이다. 그래서 교육 혁신 생태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학교, 교사, 학교경영자, 기업, 투자자, 기술자 등도 혁신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있다.

세계 각국 교육 정상들, 글로벌 교육 혁신을 논하다

지난 9월 21일 코엑스에서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이 개최되었다. 이번 서밋은 아태 유럽 주요국의 석학, 장관, 교육 분야 정책가 및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 글로벌 교육 정상들이 모여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각국의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교육 혁신 허브를 국내에 구축하여 글로벌 교육 퍼스트 무버로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동향을 공유하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외 및 민간학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개인화 학습을 확산하고 '인공지능 활용 수업'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육 관련 행위자들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과 건전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혁신 주체가 교육 혁신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서밋은 2개의 기조강연과 4개 세션의 서밋 토크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기조강연은 OECD의 안드레아스 슬라이허 교육기술국장이 맡았다. 슬라이허 국장은 기술적 혁신 뿐 아니라 사회적 혁신을 통해 하이터치 하이테크 접근법을 교육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반복적인 과제가 줄어들고 비정형적인 과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미래 인간의 일자리

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혁신을 이야기할 때 교육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슬라이허 국장은 교육이 더 빠르게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필리핀의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겸 교육부장은 교육분야의 가장 큰 도전은 기술의 변화와 교육 종단의 위기로 제시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가별 개선 과제 논의

첫 번째 서밋 토크는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가별 개선 과제와 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장관급 서밋으로 운영되었다. 미국 브루킹스의 엘리자베스 킹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우리나라의 이주호 부총리, 카자흐스탄의 가니 베이셈바예프 교육부장관, 몽골의 간바야르 간볼드 교육부차관, 우즈베키스탄의 슈크랏 움마타리에비치 야쿠보브 고등교육개발연구센터 소장이 참여하였다. 이주호 부총리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 HTHT) 교육을 소개하였다. HTHT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화 교육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이터치 하이테크의 두 가지 축은 교사와 에듀테크로, 이러한 혁신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고,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맞춤 경로를 만들어주는 학습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는데, 첫째, 2025년까지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교육 혁신 허브를 국내에 구축하여 글로벌

교육 퍼스트 무버로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교과서와 코스웨어를 학교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속 와이파이와 클라우드 기반 앱, 1인 1기기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둘째, 하이터치를 위해, 디지털 수업 혁신 선도교사인 터치 교사단을 신설하여 확대 중에 있다. 디지털 기술과 정서적인 공감 역량을 모두 갖춘 교사를 집중 양성하고 연수를 통해 모든 교사가 수준 높은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교육 혁신을 위해 공교육과 에듀테크가 함께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었던 사교육이 이제는 공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어서 각국의 교육 혁신 사례가 공유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는 전 지구적 문제

두 번째 서밋 토크는 고등교육에서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였다. UN의 폴 라드 사회개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미네르바대학교의 켄 로스 부총장, 아리조나주립대학교의 데일 존슨 디지털 혁신연구소장, 유네스코의 보렌 샤크룬 정책·평생학습 국장, Quacquarelli Symonds의 벤 쏘터 부대표가 참여하였다. 김우승 원장은 수업의 혁신을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한양대학교의 IC-PBL(현장 연계 실질적 문제해결역량개발 교육)을 소개하였다. 국가차원에서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 사례로 대학과 산업계,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라이즈 사업'을 소개하였다. 켄 로스 부총장은 미네르바대학교의 증거 기반 학습을 활성화하는 교육과정, 학생 참여형 학습 플랫폼, 체험 중심의 학습 성과관리를 제시하였다. 데일 존슨 소장은 아리조나주립대학교 재학생의

50% 이상이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있고, 성인 학습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례를 설명하였다. 보렌 샤크룬 국장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격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고등교육 기회의 격차,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의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벤 쏘터 부대표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는 리스킬링, 업스킬링을 위한 마이크로 디그리 등의 혁신적인 고등교육의 제공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기업의 추구 가치와 기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 가져

세 번째 서밋 토크는 기업 세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래리 넬슨 아시아 총괄 부사장이 좌장을 맡고, 유네스코 펑춘 미아오 AI·기술 교육분야 최고책임자, MindCET의 에비 월샤브시키 대표, 에누마코리아의 이수인 대표, kt 클라우드의 윤동식 대표이사가 참여하였다. 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기술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에 있어서 기술의 역할과 형평성의 이슈, 기술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등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에듀테크는 기술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교육적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네 번째 서밋 토크는 혁신 기술의 교육현장 적용을 주제로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의 찰스 노스 부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세계은행의 크리스찬 에이도

아시아태평양교육국장, 미국의 수지 오 공립학교장, 필리핀의 아니세토 오르베타 필리핀개발연구소장, 아시아개발은행의 엠마뉴엘 지메네즈 평가국장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이 세션에서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의 결정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증거는 학교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 세계의 학교는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교실의 수업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국가 간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정된 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K-에듀' 성과 공유의 시간... 국제 협력의 구심점 기대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교육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들을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제 어느 나라에서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내년에는 올해 서밋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인 정책담당자 세션과 교사 세션을 더욱 강화하여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높여나가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은 향후 'K-에듀'의 우수한 성과를 세계적으로 공유하면서 교육 혁신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②



3 '교육, 혁신 그리고 생태계'를 주제로 한 장관급 서밋토크



4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 겸 교육부 장관의 기조연설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지난 10년간 전체 이주배경 학생은 약 3배가 증가했는데, 외국인 학생은 약 8.6배가 증가하였다. 즉, 미래 다문화 교육정책에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이 18만 명을 넘어섰다. 202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중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국적이거나 외국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이 181,178명이나 된다. 이 숫자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3.5%에 해당한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학생 수가 67,806명이었고 비율은 전체 학생의 1.1%였으니, 그간 약 3배가 증가한 셈이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글로벌 사회가 되었다는 증거이자, 사회·경제적으로 국제교류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이주배경인구가 약 218만 명(총인구의 4.2%)이고 2040년에는 약 323만 명(총인구의 6.4%)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 학교의 모습이 더욱 글로벌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현장은 이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을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육정책을 펴나가야 할까? 그리고 이 문제가 단지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일까? 우리 모든 학생과 관련된 문제는 아닐까? 교육부는 우리 교육환경이 급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했다.

교육부 다문화 교육정책의 인식 대전환

그동안 우리 교육현장은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써왔다. 다 같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다문화’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다문화 학생’이라고 불려왔던 학생들의 70%를 넘는 수가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교육현장은 ‘우리나라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알게 모르게 구분해 왔다.

그 시작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 증가하던 국제결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은 ‘지원대상’의 하나였다. 교육현장도 마찬가지였다. 즉, 지금까지는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정책도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무언가를 도와줘야 하는 아이들’이라는 관점 말이다.

그러나, 교육정책에서의 ‘다문화’는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UN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은 다른 국적이나 문화를 가진 아동을 불쌍하거나 측은하니 도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아동이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제2조).”라고 말한다.

이제는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정책도 인식의 대전환을 추구하고자 한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돕는 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라는 인식으로 말이다. 이 인식의 전환이 미래 교육부 다문화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 9월말, 윤석열정부 최초의 5개년 다문화 교육정책인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3~’27년)」을 수립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3~’27년)」

이번 방안은 ‘이주배경학생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삼았다. 제목과 비전에서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우리 교육을 받은 누구나 함께 성장하고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아래의 [그림]과 같은 3대 정책 방향도 내세웠다.

1)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위한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

최근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의 증가세를 살펴보면,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 학생의 증가세가 크게 두드러진다. 지난 10년간 전체 이주배경 학생은 약 3배가 증가했는데, 외국인 학생은 약 8.6배가 증가하였다. 즉, 미래 다문화 교육정책에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그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3~’27년)」의 3대 정책 방향

01	(인식 전환) 취약·소외계층 → 우리 공동체의 일원
	앞으로,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을 뒤쳐진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포용성 을 높이는 구성원으로 인식
02	(학교부담 경감) 학교단위 대응 → 지역중심 지원
	앞으로, 다문화 교육정책은 학교·교원이 개별적으로 맡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로서, 정책추진의 구심점을 학교에서 지역으로 이동
03	(정주형 정책) 단순 적응지원 → 우수인재 양성
	앞으로, 다문화 교육정책을 기초생활한국어 수준의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을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정주·정착형 정책 으로 추진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구별’보다는 언어와 배경을 넘는 ‘소통’과 ‘협업’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체계 전면 강화를 위해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학교 혼자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며 고군분투하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내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수업이나 학교생활을 따라가기에 어려울 정도로 기초 한국어조차 안 되는 학생은 교육청 주관하에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하여, 「한국어 예비과정」을 듣는 학생도 출석을 인정할 생각이다.

또한, 지역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지역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인근 대학 내 한국어 집중캠프를 늘려가고, 학교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에도 지역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한국어 프로그램을 늘려갈 생각이다. 아울러,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등에도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위해 AI 기술도 적절히 활용한다. 우선 디지털교과서에 다국어번역 기능을 탑재하여, 교과수업과 한국어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한다. 그리고 학생이 방과후나 가정 내에서 스스로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24년부터 운영한다(가칭, ‘모두의 한국어’).

2) 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린 우수인재 양성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주배경 학생이 가진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이중언어나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에 강점을 가진 학생을 글로벌 우수인재로 키우는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달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의 강점을 살려 이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정책학교도 운영한다. 이와 같은 학교는 이주배경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외국어와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로 만들어 갈 생각이다. 또한, 다문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업계고도 지속 확대하고, 전문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학생의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로교육이 중요하다.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진로체험을 확대하고, 다문화 직업인 등이 참여하는 진로콘서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링을 적극 확대하여(멘토수: ’23년 4천 명 → ’24년 8천 명), 학생 세대 간 교류기회를 대폭 늘린다.

3)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시군구의 공통된 현상은 아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이주배경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22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이 되는 전국의 초중고 중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는 71개교다. 해당 학교는 33개 시군구에 속해 있고, 이 중 약 절반(44%)의 학교는 5개 시군구에 몰려있다. 이와 같은 지역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주배경학생이 특히 많은 학교에는 한국어학급, 지원인력,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육여건을 빠르게 개선토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기회가 많은 예·체능 프로그램이나 영화·연극 등의 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에 1개씩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설치하여 인근 학교를 지원한다. 내년에도 5개를 시범운영하고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학교를 연결해 주고, 학부모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업콘텐츠와 학습자료를 학교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다문화 교육정책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신설

지난 ’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적인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초·중등교육법」에 최초로 다문화 교육정책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

다. 앞서 말한 다양한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을 마련하여, ’24년 4월부터 교육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주요내용

- ❶ (국가·지자체 의무) 다문화 교육정책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 ❷ (정책대상 범위) 다문화가족 구성원(내국인) + 입학 예정·재학중 외국인
- ❸ (교육부장관·교육감 권리)
 - 1) 교육부장관의 다문화 교육 실태조사 실시권
 - 2) 교육감의 한국어학급 등 특별학급 설치·운영권
 - 3)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특별학급에 대한 필요경비 및 인력지원권
 - 4)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권/지정·위탁권
- ❹ (학교장 의무) 1)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2) 다양성 존중 3)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할 의무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다문화 교육정책은 모든 학생을 위한 정책이다. 이주배경과 상관없이 학생 모두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구별’보다는 언어와 배경을 넘는 ‘소통’과 ‘협업’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다. 즉, 다문화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들은 소통과 협업이라는 가장 중요한 미래역량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문화 교육정책이 핵심 미래 교육정책인 이유이다. ⑦

애니메이션은 만화와 그림에 목소리와 움직임, 배경음을 삽입하는 예술 분야, 또는 그 분야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일컫는다. 이 모든 제작과정을 아우르며, 예산 수급까지 총괄하는 업무는 '애니메이션 프로듀서'의 몫이다. 15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애니메이션 프로듀서이자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박은애 교수를 만나 애니메이션 PD의 세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애니메이션 프로듀서

백석예술대학교 영상학부 박은애 교수

“성실과 끈기가 가장 빛나는 재능이죠”

<꼬마버스 타요>, <뽀로로 한
국 대모험>, <허풍선이 음
악쇼>의 공통점은? 모두 EBS에서 인
기리에 방영됐던 애니메이션 타이틀이
다.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모두 현 백
석예술대학교 영상학부장인 애니메이
션 프로듀서 박은애 교수가 제작총괄
로 참여했던 작품들이다. 특히 <허풍
선이 음악쇼>는 2021년 박 교수에게
WAF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어워드에서 '애니메이션 감독상'을 안
긴 작품이다. 박 교수는 “초기 애니메
이션 현장에서 밤샘하며 힘들게 일하
던 기억을 모두 잊게 할 만큼 값진 보
상과 보람을 느끼게 해준 수상이었다.”
라며 소감을 들려주었다. 지난 10월 19
일, 박 교수를 만나기 위해 찾은 서울
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백석예술대 캠퍼

퍼스 교정에는 2024년 수시 실기전형
을 위해 방문한 고3 학생들의 발걸음
이 분주하게 오갔다. 미래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끌 학생들의 애니메이터로서
의 꿈이 이곳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은 애니메이션 프
로듀서 박은애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하나, 애니메이션 프로듀서가 하 는 일을 소개하면?

애니메이션 영상제작 프로젝트를
위한 시장의 흐름을 읽고, 스토리 구성
에는 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
하여 아이디어로 구현해 내는 역할을
맡는다.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예
산 수급은 물론 시나리오 작가, 애니메
이터 등 제작 스태프의 구성과 업무 조
율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한 마디
로 애니메이션 영상작품의 '제작총괄'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는

프로젝트 전반을 조율하고

소통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만큼 수반하는 애로사항도

많을 수밖에 없다.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셋, 학부에서는 영상학, 석사는

컴퓨터 아트, 박사과정은 컴퓨

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 융합콘텐츠

운영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당시 업계의

커다란 흐름이었다. 애니메이션, 가상

현실(VR), 게임엔진 등 영상 콘텐츠를

다양하게 융복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아트는 물론, 컴퓨터 공학의 기술 영역

까지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었다. 영화의 시각 특수효과(VFX) 제

작부터 애니메이션 프로듀서 업무까지

유용하게 적용해 올 수 있었다.

넷, 영상과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선보인 첫 작품, 그리고 대표작은?

현업에서의 첫 영상 프로젝트

는 미국 드라마 <플래시 고든(Flash

Gordon)>의 VFX, 곧 CG 특수효과

제작이었다. 이후 귀국하면서 몇몇 프

로젝트의 VFX 제작에 더 참여했다. 이

후에는 애니메이션 제작총괄인 프로듀

서로 전향하여 일하게 되었다. 유년 시

절 꿈인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본격적

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프로듀서로서

참여한 첫 작품이 TV 시리즈 <꼬마버

스 타요 시즌 1, 2>다. EBS를 비롯하여

여러 채널에서 방영한 작품이다. 2012

년에는 역시 EBS에서 방영한 <뽀로로

한국 대모험>, <뽀로로의 잉글리시 쇼>

등 ‘뽀로로’ 스피노프 시리즈의 제작총

괄을 맡아 진행했다.

이어서 이곳 학교로 옮기기 직전까

지 제작총괄 및 시나리오 작업에도 참

여했던 작품이 <허풍선이 음악쇼>를

비롯하여 <허풍선이 미술쇼>, <허풍선

이 과학쇼> 등이다. 시나리오 작업까지

병행하다 보니 캐릭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샘솟곤 했던 프로젝트였다. 특

히 <허풍선이 음악쇼>는 EBS를 비롯

하여 전 세계 30개 국가 이상의 채널

에서 방영된 바 있다.

다섯, 애니메이션 현장에서 일하

면서 느꼈던 보람, 그리고 애로사

항이 있다면?

프로듀서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첫 방영, 또 영화의 상영이 끝나

고 크레딧 타이틀에서 이름을 확인

하는 순간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애환들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순

간이기도 하다. 또 프로듀서는 해외 마

켓에서 뜨거운 반응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 때 보람을 느낀다. 해외 ‘애니메이션

서밋’ 피칭(스타트업 회사가 투자유치

를 목적으로 하는 발표)에서 내 명함을

받기 위해 방송관계자들이 길게 줄을 설

때, 신작을 기획한 프로듀서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끼곤 한다.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는 프로젝트 전

반을 조율하고 소통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만큼 수반하는 애로사항도 많을 수

밖에 없다. 때로는 마감 기한 미준수, 또

‘한 컷만 더’를 고집하는 작업자들을 설

득하고, 다독이는 일도 프로듀서로서는

매우 까다롭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여섯,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

주소는? 그리고 미래 전망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세계시장

과 견주어 아직은 그 규모 면에서 협소

한 편이다. 주 소비층도 아직은 한정적

이다. 2021년에 공개된 총 72편의 국

산 상업 애니메이션 중 유아·아동 대상

3D 애니메이션이 55편을 차지한다(출

처: 「2022년 애니메이션 산업백서」). 현

재로서는 유아·아동 대상이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산업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12 <허풍선이 미술쇼>(좌), <뽀로로의 잉글리시 쇼>(우) (사진 제공: EBS)
3 학생들과 함께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박은애 교수

작품들도 나와야 할 시점이다. 덧붙여

시나리오 작가 등 성인 대상 애니메이

션 창작인력 양성 또한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또 다른 새로운 경

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웹툰과 애

니메이션의 경계도 점차 낮아지는 추

세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웹툰에 관심

을 두는 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애니메이션 세계시장은 매년 꾸준

한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향후

2025년까지 연평균 29% 성장을 전망

하기도 한다. 이처럼 세계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 애

니메이션 기업에 대한 투자도 콘텐츠

산업 간 연계 등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 K-팝, K-영화 등 한국 문화콘텐츠

의 전반적인 가치향상으로 국내 애

니메이션 산업의 미래도 긍정적인 측

면에서 평가를 얻고 있다. 12

TIP BOX

애니메이션 PD에게 필요한 역량은...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로 일하려면 가장 중요한 역량이 작업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초종교 학생이라면 가장 먼저 드로잉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전공자라면 상급학교 진학이나 진로 선택에서 다소 유리하다. 또 애니메이터로서 첫발을 들여놓았다면, 무조건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며, 프로젝트 하나는 끝까지 완성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업무영역에서는 그만큼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으로는 ‘성실과 끈기 있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다.



600년 전 지상에 세운
달나라 궁전

광한루원

옛날 사람들은 꽤 낭만적이었던 것 같다. 은하수 너머 달나라 궁전에 옥황상제와 선녀가 살고, 건우가 직녀가 은하수에 놓인 오작교에서 만난다고 상상했으니 말이다. 조선 시대 사람들의 이런 상상을 현실 세상에 구현한 것이 광한루원이다. 광한루원은 그들의 세계관과 우주관이 반영된 건축물이자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었다.



광한루원 연못에 가을이 내려 앉았다

광한루를 처음 세운 황희 정승

흔히 광한루와 광한루원을 혼용한다. 광한루(보물)는 광한루원의 중심 건물로서 누각 한 채를 일컫는다. 광한루원(명승)은 광한루를 비롯해 연못, 오작교, 완월정, 춘향사당, 춘향관, 월매집 등을 포함한 누원 전체를 말한다.

광한루를 처음 세운 이는 조선 시대 청백리로 이름난 황희(1363~1452) 정승이다. 황희는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 폐위와 충녕대군 왕세자 책봉을 반대하다 태종의 눈 밖에 나, 남원에 유배됐다. 유배된 이듬해인 1414년(태종 14년), 남원 요천 강변 부친의 서재 터에 ‘광통루’라는 작은 누각을 세웠는데, 이것이 광한루의 전신이 되었다.

황희가 세종의 부름을 받아 관직에 복귀한 뒤, 남원 부사 민여공이 광통루를 큰 누각으로 고쳐 지었다. 허동부원군 정인지는 ‘광한루’로 이름을 고쳤다. 남원 부사 장의국은 요천 물을 끌어다 연못을 만들고, 오작교를 세웠다. 선조 때 전라도 관찰사 정철은 연못에 섬 세 개를 만들어 상상 속 달나라 궁전을 완성했다. 세 섬은 각각 한라산, 금강산, 지리산을 의미하며 지상낙원을 표현한 것. 섬 사이에는 나무다리를 놓았다. 만약 옛날에 나무다리가 없었다면, 은하수를 건너는 하얀 조각배 같은 나룻배를 띄워 연못을 건너지 않았을까.

광한루원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타 소실되기도 하고, 1960년대까지 재건과 보수를 거듭했다.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임을 알고 나면 돌덩이 하나도 허투루 보이지 않는다.

사랑이 싹트는 공간

광한루는 달나라 궁전 건물을, 광한루 앞 연못은 은하수를 상징한다. 연못 위에 놓인 오작교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널 때 이용했던 전설 속 오작교를 본떠 만든 돌다리다. 국내에서 가장 긴 연못 다리로서 길이가 약 57m에 달한다. 네 개의 무지개 모양 홍예가 연못에 비친 모습이 매우 아름답



- 1 전복 남원 광한루원 완월정 야경
- 2 월매집 앞 은행나무가 물든 풍경
- 2 보물로 지정된 광한루와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

다. 오작교는 소설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이 처음 만난 곳으로도 등장한다.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건너며 신분 차를 뛰어넘는 사랑을 한 것처럼, 춘향과 몽룡도 그렇게 사랑을 이뤘다.

오작교를 건너며 연못을 굽어보니 빗갈 고운 비단잉어들이 떼 지어 헤엄친다. 이 연못에 비단잉어 3천여 마리가 산다고 한다. 흔치 않은 은색 잉어, 사람 얼굴을 닮은 인면 잉어도 보인다. 잉어들이 사람의 말소리나 움직임을 알아채는 듯 졸졸 따라다닌다. 비단잉어 떼 속에서 원앙(천연기념물)이 짝지어 노닌다. 나무 그늘에 앉아 잉어와 원앙이 노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힐링 된다. 견우와 직녀, 춘향과 몽룡, 원앙까지, 광한루원은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올해부터 매주 주말에 ‘커피스데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광한루원이 연인들의 성지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광한루원의 빛나는 조연들

광한루원에서 광한루에 버금가는 누각이 완월정이다. 1969년 광한루원 확장 공사 때 지은 누각이 어도 옛 멋이 흐른다. 연못에 가늘고 긴 다리를 세우고, 버선코처럼 날렵한 처마에 화려한 단청을 했다. 연못가 버드나무와 어우러져 전통미를 한껏 뽐낸다. 마치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을 누각으로 표현한 것 같다. 매년 5월 열리는 춘향제의 주 무대이자 판소리 상설 공연장으로 사용된다. 광한루원에 오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완월정에서 달랜다.

완월정에서 성춘향과 이몽룡이 백년가약을 맺은 월매집으로 가는 길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광한루원 북문 쪽에는 춘향사당이 있는데, 올해 처음 선보이는 새 춘향 영정이 걸려 있다. 춘향관에 1대, 2대 춘향 영정이 전시돼 있으니, 비교해봐도 좋겠다.

광한루를 한갓지게 산책하고 싶다면, 오후에 입장해 야간관람까지 하는 걸 추천한다. 누각과 연못 주변에 오색 조명이 켜져 낮과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완월정 앞 달빛정원의 커다란 보름달 조명 등 앞에 서면 옛사람들이 상상했던 달나라가 한층 가까워지는 느낌이 든다. ❷



광한루원 정보

- 주소**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 관람 시간** 08:00~20:00
- 입장료** 어른 5,000원(남원사랑 2,000원 상품권으로 환급),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18:00시 이후 무료
- 문의** 0507-1321-0709



제대로 읽는 동양고전, 주역

주역은 점에 모든 걸 맡기는
수동적 삶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도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능동적 삶을 제시하고 있다.

동양고전은 한두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다. 책 이름에 ‘경(經)’이 들어가는 경우로 역경, 서경, 시경 등이 있고 ‘서(書)’로 묶는 경우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이 있다. 이를 묶어서 사서삼경이라고 한다. 책마다 특징이 있고 다루는 주제가 다르다. 이 중에 주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고전, 주역

주역은 사람의 운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단연 동양고전에서 으뜸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커피에 비유한다면 주역은 에스프레소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에스프레소에 물과 우유 그리고 크림을 섞어서 다양한 커피를 제조하듯이 사람의 운명이란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희로애락과 길흉화복의 차이가 펼쳐질 수 있다. 사람은 다들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한다. 전쟁을 앞둔 이는 승패 여부를, 병을 앓는 이는 완쾌 여부를, 시험을 앞둔 이는 합격 여부를, 신청을 하는 이는 선정 여부를, 미혼인 사람은 결혼 여부 등등을 알고 싶어 한다. 아마 여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알고 싶은 운명은 많다.

문화권마다 운명을 알고자 하는 방법이 다르다. 유일신을 믿는 문화라면 신이 기도를 통해, 과학을 신뢰하는 시대라면 통계에 바탕을 둔 예측 시스템을 통해 운명에 접근하려고 한다. 과거 동아시아 사람은 어떻게 운명을 알고자 했을까? 동아시아에도 조상신과 자연신이 있지만 이들은 사람이 불행을 피하고 행운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호신의 특성을 갖는다. 이들은 세계를 창조하거나 미래를 알려주는 권능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아시아 사람은 신에 의지해서 운명을 알 수는 없었다.

운명을 예측하는 세 가지 방식

주역에 따르면 동아시아 사람은 3가지 방식으로 운명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첫째, 자연과 사회는 음양(陰陽)의 교체에 따라 바뀐다. 봄에서 여름까지 양기가 주도하고 가을에서 겨울까지 음기가 주도한다. 사람은 이러한 음양의 교체에 맞춰 살면 복이 생기고 화를 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이는 농업 중심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제때 씨를 뿌리고 김을 매지 않으면 가을과 겨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타자에 맞서 지혜를 축적해왔다. 그것이 전통문화와 역사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어떤 유형으로 행동한다면, 전통과 역사에서 그 유형에 닮은 사례를 찾으면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일할 때 얇은 얼음을 밟듯이 깊은 연못 앞에 있듯이 하라고 한다. 이는 얇은 얼음과 깊은 연못의 경험을 통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셋째, 사람은 위의 두 가지 방식에서 지혜와 통계를 발휘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삶에는 나름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개인과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만 도저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성공과 실패, 행운과 불운의 가능성이 각각 50%라고 한다면,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최악을 피하는 지혜, 64괘

바로 이때 동아시아 사람은 주역 점을 쳤다. 주역 점은 거북의 배딱지가 갈라지는 모양으로 길흉을 예측하는 방법을 이어서 시초(蓍草, 톱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지금이면 시초 대신에 성냥개비 50개에서 한 개를 빼놓고 49개를 두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을 몇 차례 반복하여 주역에 나오는 64괘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괄을 찾게 된다. 이렇게 찾은 괄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예측한다.

64괘에는 “믿어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라는 선언적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하여 행운을 얻더라도 도취되지 않고 또 불운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지혜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주역은 사람이 운명 앞에 나약할 수 있지만 그 나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최악을 피하고 최선을 찾아가도록 끊임없이 연마하도록 한다. 주역에서는 이를 ‘스스로 굳건해지도록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자강불식(自強不息)’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역은 점에 모든 걸 맡기는 수동적 삶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도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능동적 삶을 제시하고 있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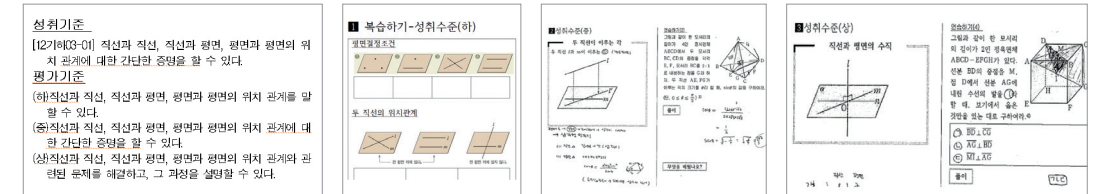
모든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하며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각종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과정중심평가를 시작하였다.

선 행학습으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학생, 오늘 처음 내용을 배우는 학생,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수학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은 학생... 한 교실에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학생들이 모여 있다. 이 학생들이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모든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하며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각종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과정중심평가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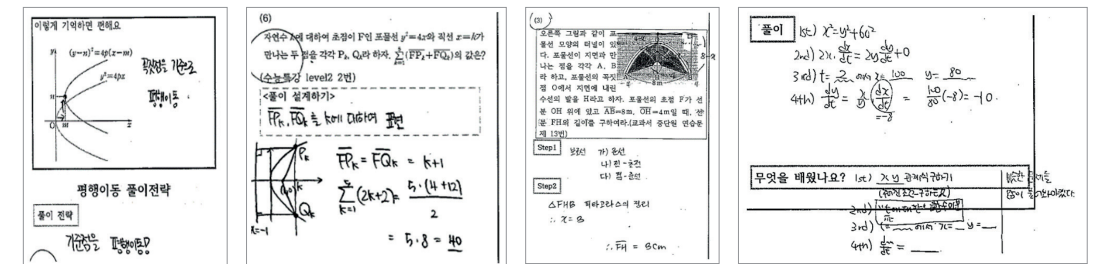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수업의 시작, 과정중심평가

학생들에게 과정중심평가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매 수업 시간 평가지를 주며 그 평가지를 선생님이 채점한 후에 다음 시간에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수업 시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엎드려려고 애를 쓰는 학생, 멍한 표정의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평가지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평가지를 작성하면서 모르는 문제는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동안 배움을 경험하여 의미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때, 모든 평가는 성취기준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한 차시의 수업은 하나의 성취기준을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으며, 다시 상·중·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개념, 문제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한 차시의 수업을 정리할 때도 평가 기준 상·중·하를 활용하였으며 학생들에게는 성취 수준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을 익히고 새로운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지도하기 위해 수업을 설계하였다. 활동지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풀이를 설계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알고 있는 문제를 구조화하여 정리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으며, 새로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학생 스스로 탐구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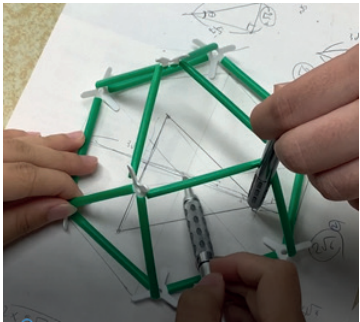


학생들의 활동지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수준이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난도가 높은 문제들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문제 풀이 단계에서 여러 단계를 요구한다.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단계와 모르는 단계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 학생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한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그림처럼 단계를 나누어 설정하여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문제를 풀고 나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풀이를 점검하며 무엇을 배웠는지 파악하도록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각자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원래 알고 있었던 것과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등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활동형 과정중심평가 설계와 실제

성취기준에 따라서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입체도형을 만들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측정하는 수업은 교구를 활용하였다. 종이와 연필로 입체도형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것을 연습한 후, 입체도형을 직접 만들어 보고 주변의 사물을 관찰하여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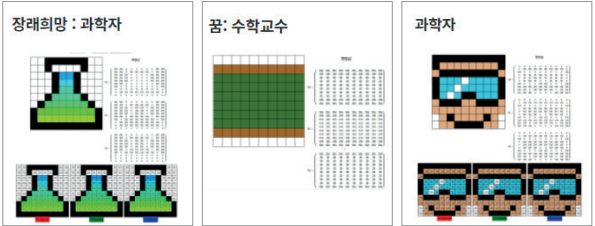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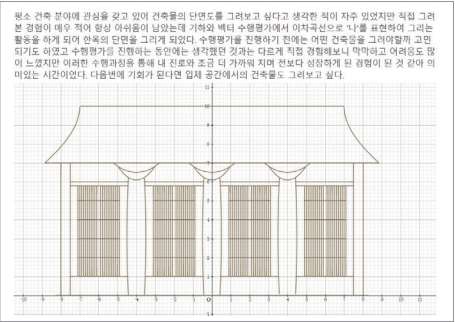
현실에서 측정하는 활동형 과정중심평가를 설계하였다. 이 과정 중심평가에서 확인하고 싶은 역량은 창의·융합 역량이었다. 학생들은 창의적인 입체도형을 제작하였으며, 이 입체도형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하여 교과에서 학습한 지식(정사영, 무게중심, 삼각비)을 활용하였다. 또한, 4명의 학생이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부여하였다. 종이와 펜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풀게 하였으며, 실제 각도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하였다.

자신의 꿈을 이차곡선으로 표현하기

기하 과목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주제가 많다. 이차곡선 단원의 성취기준인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뜻을 알고,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인 동기로 이차곡선을 좌표평면에 그리고 방정식을 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진로와 연결하여 이차곡선으로 자기의 꿈을 디자인하는 수행평가로 3개 종류의 이차곡선을 좌표평면에 표현하며, 방정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표현한 그림이 자신의 진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술한 것을 평가하였다. 이때,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개발한 도형학습용 소프트웨어 알지오매스를 활용하였다. 알지오매스의 알지오모듈과 알지오 문서의 기능을 활용하여 과정중심평가를 진행하였다. 자신의 꿈을 이차곡선으로 좌표평면에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향상시켰으며, 공학적 도구인 알지오매스의 알지오 문서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에서도 활용 가능한 평가를 설계하였다.

수학으로 인공지능 배우기

<인공지능 수학>은 2015 수학과 교육과정의 진로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미래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수학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인공지능 기술에 활용되는 수학은 참 많다.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이미지데이터와 관련된 인공지능 모델은 수학의 행렬을 활용하고 있다. 챗GPT와 같이 새로운 텍스트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은 수학의 벡터, 확률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50년 뒤의 인구, 기후현상은 수학의 극한, 미분을 토대로 인공지능이 예측할 수 있다. 수학은 학문 자체로서 참 아름다운 학문이지만, 이렇게 쓸모도 많은 과목이다. 학생들이 수학의 아름다움과 쓸모를 알고, 수학에 대한 가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등 다양한 수학 과목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습하기를 바라며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이미지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먼저 이미지를 행렬로 표현한다. 그리고 행렬의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를 변환한다. 학생들에게 이 과정을



서 이미지를 변환하게 하였다. 수학의 덧셈, 뺄셈을 이미지 변환에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앱, 인공지능에 수학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편, 챗GPT를 활용하여 수학 수업도 진행하였다. 챗GPT에게 한국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풀이하게 하면 정답률은 10~30% 정도 수준이고, 등급으로 환산하면 9등급이었다. 이에 학생들에게 수학 교과에서 챗GPT를 활용할 때는 챗GPT의 대답을 맹신하지 않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학생들에게 챗GPT에 수학문제를 질문하고, 챗GPT의 대답을 확인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게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었다.

챗GPT에게 질문한 수학 문제

2. $\lim_{x \rightarrow \infty} \frac{\sqrt{x^2-2}+3x}{x+5}$ 의 값은? [2점]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챗GPT 풀이에 대한 학생의 비판적 분석과 수정

무한대로 다가가갈 때 분자와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은 x 이다. x 의 제곱항은 $\sqrt{\text{안에 있으므로}}$ 가장 높은 차수는 일차이다. 챗GPT는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을 구할 때 루트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분자와 분모의 각 항을 x 로 나누고, x 가 무한대로 다가가갈 때, $-2/x^2$ 과 $5/x$ 은 0으로 수렴하므로 답은 4이다.

$$\begin{aligned} &= \lim_{x \rightarrow \infty} \frac{\sqrt{1 - \frac{2}{x^2}} + 3}{1 + \frac{5}{x}} \\ &= \frac{\sqrt{1-0}+3}{1+0} = 4 \end{aligned}$$

챗GPT 답변

주어진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로, x 가 무한대로 다가가갈 때의 극한값을 찾는 것입니다. 주어진 극한식을 풀어보겠습니다.

$$\lim_{x \rightarrow \infty} \frac{\sqrt{x^2-2}+3x}{x+5}$$

무한대로 다가가갈 때, 분자와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 분자와 분모의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은 각각 x 의 제곱항입니다.

분자와 분모의 각 항을 x^2 로 나누어보겠습니다.

$$\lim_{x \rightarrow \infty} \frac{\sqrt{\frac{x^2-2}{x^2}} + \frac{3x}{x}}{\frac{x}{x} + \frac{5}{x}}$$

이제 x 가 무한대로 다가가갈 때, $\frac{5}{x}$ 은 0으로 수렴합니다. 또한, $\frac{3x}{x}$ 은 3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극한을 다시 쓰면:

$$\lim_{x \rightarrow \infty} \frac{0+3}{0+0}$$

분자와 분모의 합계가 각각 3과 0으로 되므로, 이 극한은 3/0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므로, 이 극한은 무한대로 발산(infinite)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함수의 극한값은 무한대입니다.

수학 수업은 한 편의 ‘드라마’

수학 수업은 한 편의 드라마에 비유할 수 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60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드라마가 끝나면 너무 아쉽고 다음 화가 기다려진다. 드라마를 보지 않을 때도 친구들하고 주인공 이야기를 하며 다음 화를 예측하기도 한다. 실제 수학 수업은 드라마이다. 공간도형 단원은 (김)직선과 (박)평면이 주인공인 드라마이다. 주인공인 직선이와 평면이의 탄생과 성장 과정도 있고, 직선이와 평면이의 관계가 평행선을 달리기도 하고 다시 같은 방향을 향하기도 하며 드라마틱하게 변화해나간다. 수학 수업이 아이들에게도 재미있는 드라마처럼 기다려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나가고, 수업이 끝나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드라마 같은 수업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성장하는 해피엔딩 드라마. ㉞

REPORT
01.

경기도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꿈꾸다



‘교권’은 2023년 여름을 내내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였다. 진정한 교육 혁신을 위해선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교권 보호 4대 입법을 통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보호는 단순히 정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는 학생-교원-학부모 간 공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함께학교’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존중을 기반한 새로운 시대의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통적인 생활지도와 상호 존중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지도부장은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담당했으며 흔히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리곤 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생활교육 패러다임은 존중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생활지도’와 ‘존중’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을까? 경기도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회장 구경순·고양 오금초 교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다.

경기도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는 2016년에 시작되었다. 주된 목표는 회복적 정의를 토대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란, 응보적 정의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가해자 대신 피해자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문제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그 영향력을 바라본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가해자 스스로가 다른 이에게 미친 피해를 직면하고, 그 영향력을 바로잡는 기회를 가진다. 이는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 피해자는 회복되고

공동체의 재통합이 이루어진다.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는 회복적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연수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장학 자료를 개발하고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한다. 회원의 대부분은 현직 교사이며, 교육청에서 학교 내 갈등을 다루기 위한 화해 중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 회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서클을 운영한다. 서클은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집단상담과 유사해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집단상담이 공동체의 역동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회복에 더 집중한다면, 서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연대감을 준다는 것이다. 서클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안

정감을 느낀다. 이렇게 할 때 교육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신뢰감이 생기고 갈등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러한 신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작은 규모의 대화모임을 통해 문제를 아우르고자 하는 자발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계 중심의 학급문화는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마주하는 갈등은 서클의 주제가 된다. 또한, 서클을 통해 나누는 주제들이 교과에 반영되고 이는 삶과 연계된 교육이 된다. 이 속에서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은 융합되고, 교사의 효능감은 증대된다.

회복적 정의의 핵심,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렇다면 회복적 정의가 교권 보호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는 다음의 과정을 제안하였다.

먼저, 학기 초에 학교 공동체가 함께 약속을 만든다.



서클의 약속



오늘의 마음날씨를 확인하는 학생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연수 모습



교실 속 회복적 생활교육, 서클은 학생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수평적 관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규칙과는 다르다. 규칙은 외부에서 주어진 다. 또한 지시적·일방향이적이다. ‘내’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지키게 하기 위해선 외부 압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존중의 약속에는 ‘내’가 참여한다. 참여자 모두가 책임을 공유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의 약속은 학생들에게 촘촘한 관계망을 구성한다. 이러한 관계망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예방 장치가 된다.

그러나, 예방 장치가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갈등은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 이전에 회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잘못된 학생을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직면하도록 하는 인지적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이 잘못된 행동의 문제점을 알고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후에 조치를 이

행한다. 조치를 이행할 때도, 학생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가 참여하여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행위자를 배제하고 처벌하는 방식만 사용한다면 문제행동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행위에 대한 책임과 함께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 속에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상담, 심리치료 포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교육 현장에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회복이, 학생들의 진정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 현장은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교육공동체 전체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교권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앞둔 시기, 대한민국의 학교가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길 기대한다.

REPORT
02.2023년 양산 학부모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운동회 가고 싶은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양산교육지원청 학부모네트워크에서 기획하여 2019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추억의 운동회’가 지난 10월 11일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자녀 양육으로 지쳤던 학부모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는 운동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로, 양산 지역 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든 가을 운동회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팀을 나누어 운동장 한가득 학생들이 웅기종기 모여 경기하던 그 시절, 운동장에는 만국기가 펄럭이고 점심시간을 알리는 박 터뜨리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마음으로 모래주머니를 던졌고, 대미를 장식하던 이어달리기 시간에는 모두가 숨 죽여서 응원하며 열광했던 학교 운동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네 어르

신들 모두에게 신나는 잔칫날이었다.

해방 이후 1960년대에는 학생 수가 많아지고 학부모의 지나친 찬조금이 문제가 되면서 운동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76년부터 다시 운동회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운동회에서 사용된 운동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으로 이념을 강조하는 성격을 띠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와 90년대 초 지금의 학부모들이 기억하는 전통 무용이나 민속놀이가 운동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청군과 백군으로 나뉜 팀이 줄다리기, 씨름, 기마전을 하고 저학년들은 한복을 입고 단체로 춤을 추는 ‘부채춤’이나 ‘꼭두각시 무용’ 같은 재롱잔치가 열리기도 했다.

2003년 이후부터는 초등학교에 남교사가 줄어드는 현상과 더불어 학교 건물 대형화로 운동장이 좁아져 전통적인 운동회를 준비할 여건이 어려워졌다.



사진출처: 국가기록원 운동회

이와 더불어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을 우려해 단체 연습을 통한 운동회보다는 학년별 소규모 운동회가 대세가 되었다.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운동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화합의 장인 것은 예전과 비슷하다. 지금의 학부모들에게 운동회는 어떤 추억으로 남아 있을까?

달리기 등수에 따라 손등에 도장을 받고, 큰 공을 굴리고, 박을 터뜨리다가 중간중간 엄마 아빠가 있는 듯자리로 가서 김밥과 간식을 먹고 또 달려가던 소소한 즐거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박 터뜨리기에 사용하는 오재미를 집에서 한 개씩 만들던 그 설렘과 운동회 당일 체육복을 입으며 긴장되던 그 느낌, 청군 백군 점수판을 수십 번 쳐다보며 자기 팀이 이기기를 응원하던 마음이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

‘응답하라 1980’ 학부모를 위한 추억의 운동회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날, 양산시종합운동장 실

내체육관에 모인 90여 명의 학부모들은 추억의 운동회에 참석하여 학창 시절 꼬마 아이가 되었다. 유년 시절보다 훌쩍 키도 커지고, 세월이 흘러 어린 시절 다람쥐 뺨치던 민첩함이 덜 하긴 했지만 아이들을 챙기느라 동동거리던 발로 누구보다 멀리 신발 던지기를 하며 승리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다. 오늘만큼은 아이들의 꿈무늬를 따라다니며 잔소리하는 엄마가 아니라, 우승을 위해 상대방의 꼬리를 잡기 위해 달렸고, 팍콘통 옮기기, 손잡고 릴레이, 풍선주머니 옮기기 등의 경기를 통해 살림과 육아로 지친 몸에 엔돌핀을 불어 넣었다.

운동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평소 육아로 지쳐 있던 몸이 이번 운동회를 즐기며 스트레스가 풀렸다. 다른 학교 학부모들과도 친해져서 앞으로 아이를 키우며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좋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담당한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앞으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



양산지역 내 학부모들이 참여한 '2023 학부모가 하나되는 추억의 운동회' 모습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이달의 교육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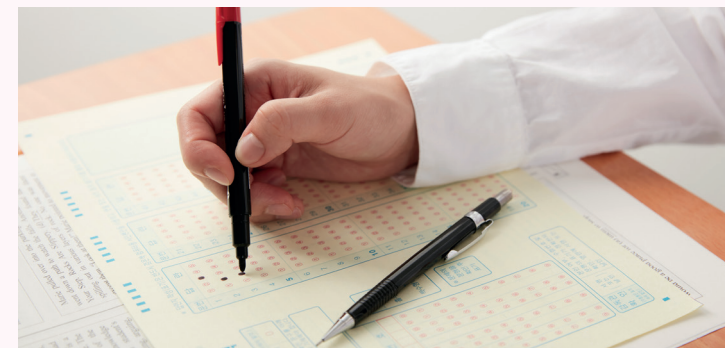
vol.496 2023 NOVEMBER

01. 2028 수능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내신 9등급제, 2025년부터 5등급 체제로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고교 내신 평가는 2025년부터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8학년도 수능은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 II'·'기하'를 절대평가 하는 '심화수학' 영역을 추가 검토안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02.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 수준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심리 안정화 및 학업 지원을 전담하며 교육·연구 기능까지 갖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03.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앞장선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시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이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가구별 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3개 기초 지자체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됐으며,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는 사업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04.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 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2024년 1월부터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가 개통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하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 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05. 2024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국외 응시기회 8회로 늘린다

2024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외 시험 시행 횟수가 4회에서 최대 8회까지 늘어난다. 또한, 지필시험(PBT)의 경우 90개국 이상,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경우 3회에 걸쳐 10개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II)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3회, 총 9차례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2022년 도입된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3회 시행된다.

06. 매년 11월 1일은 유치원 입학 신청의 날!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가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원서접수·선발·등록)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11월 1일(수)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가입 후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모집)로 희망하는 유치원(3회망까지 가능)에 접수할 수 있다.

07. 청소년,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 창업가 꿈꾼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한국 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23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최종 결선 및 시상식을 10월 19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는 작년 165개팀보다 2배 이상 증가



한 전국 372개팀이 참가했으며, 창업체험교육 누리집(<https://yeep.go.kr>)에서 17개 시도교육청별 예선 및 전국 예선을 거친 후 최종 65개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작년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을 개편하여 결선에 진출한 우수 동아리 심사 외에도 창업가 강연, 진로 이야기 마당, 미래사회(스마트시티)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했다. 특히, 미래도시(스마트시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과 대학생 창업팀 및 지역 창업 체험 센터의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으며, '대상 수상팀은 누구?', '미래 창업가 인증사진'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기획 행사도 진행했다.

08. 디지털 교육혁신의 성공을 위해 교육부-과기정통부 협력 강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4일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케이(K)-클라우드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 및 교육 현장 적용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클라우드 및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두 부처의 주요 협력과제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 서비스 개발 및 기반체제(인프라) 구축,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및 국내 클라우드 활용 촉진 지원, △에듀테크 개발 및 활성화, △디지털 인재양성 협력체계 구축이다. 특히, 두 부처는 올해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핵심 정책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09. 2028 대입개편 시안, 교육부가 전국의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설명한다

교육부는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는 충청권(대전, 10. 25.), 수도권(서울, 10. 30.), 호남권(광주, 11. 9.), 영남권(부산, 11. 10.)에서 총 4회 개최되며, 교육부 담당 부서장이 직접 방문해 학부모에게 2028 대입개편 시안을 설명한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행사 당일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4회 모두 교육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교육티브이(TV) 채널(youtube.com/@ourmoetv)에서 생중계하므로, 학부모는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2028 대입개편 시안 대국민 공청회가 잠정적으로 11월 20일(월)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이번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는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과부는 과거 부자?

도서관에서 역사적 사건 발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중 ‘과부가 많았다’는 문장을 두고 토론(?)하고 있던군요.

“과부가 무슨 뜻이지?”

“과거 부자 아니야?”

“과거 부자? 책에서 줄임말을 쓰겠어? 다른 말 아니야?”

과부가 성평등 관점에서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으나,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자를 의미하는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문해력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얼마 전 ‘심심한 사과’가 논란이 되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어느 유명 카페에서 올린 ‘심심한 사과’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한다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표현을 ‘지루하고 따분하다’로 해석하며 벌어진 촌극이지요. ‘사흘, 나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연휴가 사흘이 되었다는 안내에 ‘국어 공부 좀 하라, 3일과 4일도 구분하지 못하는 기자’라는 댓글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식 제공’이라는 가정 통신문에 중국 음식 말고 다양한 식단을 제공해달라는 학부모의 민원까지!

사흘(3일), 중식(점심 식사)이라고 친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글쓴이의 몫일까요? 문해력 부족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문해력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②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Q&A

Q1

내신 5등급제가 되면 변별력이 떨어지나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 **내신 변별력은 현행처럼
높게 유지됩니다**

전과목 절대·상대평가 병기로
대학에서 내신을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대학별고사 부활 지적 역시 사실무근입니다.



서울대
“본고사 부활 계획 없어... 현행 평가방식에 큰 변화 없을 것”

Q2

내신 5등급제를 시행하면 자사고와
특목고가 대학 진학에 더 유리한가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 **여전히 일반고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언론 및 전문가는 학생의 특성과 지망에 맞는
고교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지금보다 1등급을 받기 쉬워진 것은 일반고도 마찬가지,
수시전형에 집중하고 싶다면 일반고에 진학하는 것을 권함”

Q3

수능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는건가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 **문과든 이과든
수능 문제는 동일해집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없어지고
이론바 문과침공 문제도 사라집니다

- ✓ 선택과목 유불리 **OUT**
- ✓ 문과침공 **OUT**

Q4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에
출제하면 변별력이 없어질까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 **NO 킬러문항, YES 적정 변별력**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공정수능’
방향에 부합하는 과목입니다**

- ✗ 기존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을 모두 공부해야
한다는 학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